

새로 나온 詩集

새벽들

고재중 지음

첫시집 「바람 부는 숲속에 사랑은 머물고」에서 농민의 생활감정을 진솔하게 펼쳐보였던 고재중의 제2시집. 서사적 구조 위에서 정확하게 절제된 언어를 통해 오늘의 농민적 삶의 전체상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는데, 농촌의 피폐상을 말하면서도 환한 희망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미덕을 보인다.

창작과비평사 / A5신 / 182면 / 2200원

사냥꾼의 노래

윤형근 지음

1984년 문예중앙 신인상 시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윤형근의 처녀시집. 세상에 대한 절망과 그 절망을 관통하는 뜨거운 열기가 「아직은 서투른 광대의 웃음이어도 / 바람개비 꽃고 달리는 아이들」의 신바람을 동반한 채 표현돼 있다. 열음사에서 새로 기획한 '젊은 시인' 시리즈의 첫책권.

열음사 / A5신 / 122면 / 2000원

그리운 나라

이영춘 외 지음

춘천지역 문인들을 중심으로 1974년 결성됐던 시동인 '三岳詩'의 10번째 동인지. 중앙시단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시세계를 구축해온 성덕제, 유성윤, 박유석, 이은무, 이무상, 심상운, 김학철, 고경희, 허문영, 강대식, 박영희, 홍승자, 이영춘 등인의 신작 60여편을 묶었다.

오상 / A5신 / 114면 / 2000원

그리하여 나는 살아있다

김기택 외 지음

김기택(한국), 노용희(조선), 김우태(서울), 나희덕(중앙), 배진성(동아), 조기원(경향) 등 울초 각 일간지의 지면을 통해 시단에 나온 신춘문에 당선시인 신작시집. 90년대의 한국시단을 이끌 신인들의 앤솔로지라는 점에서 우리시의 미래를 예비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다.

문학세계사 / A5신 / 128면 / 2200원

사막의 달

미주시조연구회 편

고원, 이승자, 김호길, 이정강, 배명숙, 박양권, 최달생 등 美洲지역에 거주하는 시인 17

명의 시조작품을 모은 사화집. 고국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과 한국의 시조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녹슬지 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현대시조의 의미 있는 발전상을 보인다.

백상 / A5신 / 190면 / 2500원

바늘구멍 앞의 낙타

원희석 지음

80년대 후반 이후 독특한 문명저항시를 발표, 문단의 관심을 모았던 젊은 시인의 두번째 시집. 구두점을 거의 다 생략해버린 산문시의 형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말엽의 풍경화를 그려내고 있다. 문명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인간의 무력함과 저항을 노래한 작품 65편을 실었다.

고려원 / A5신 / 108면 / 2000원

벽 안의 소리

韓順虹 지음

「예쁜 시」가 주종을 이루는 여류시단에선 드물게 난해시 계열의 「거친 시」를 써온 韓順虹 씨의 제5시집. 모더니즘 시가 담고 있는 내면 세계의 모색과 갈등을 주로 취급한 연작시 「벽」등 40여편의 작품을 묶어 말과 사물과 시인 자신이 부딪치며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세계사 / A5신 / 106면 / 2000원

무늬진 계절

落葉문학동인 엮음

수원 및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1972년 창립된 낙엽문학동인의 28번째 동인지. 배준석, 박소림, 김기택, 이덕원, 김명숙, 원정섭, 박은주, 이진호, 진경희, 이학성 등인의 작품을 같이 묶고, 말미에 시인 낭승만의 발문 「순수와 신선한 감각의 미학」을 실었다.

뿌리 / A5신 / 138면 / 2000원

바람췌기

성기조 지음

여행을 통해 마주치는 낯선 풍물과 인정을 노래한 여행시 50편을 한데 묶은 책. 이국풍물에 대한 호기심 따위나 나열하는 경박한 엑조티즘에서 벗어나, 그같은 풍물들을 만나며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와 인식의 재편성을 주로 시화함으로써 일정한 격조를 유지하고 있다.

늘푸른 / A5신 / 124면 / 2000원

말의 사막

김광림 지음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의문과 탐색을 詩化하는 데 집요하게 매달려온 시인의 시작생활 40년만의 10번째 시집. 사막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깔려 있는 우리네 일상언어에서 근원적인 것을 탐색하기 위해 벌이는 시인의 꿈의 여행이 그려져 있다. 수록시편에 대한 월평 등을 따로 모아 뒤에 덧붙였다.

문학아카데미 / A5신 / 126면 / 2500원

누가 묻거든

신동집 지음

1948년 첫 시집 「대낮」 이후 17권의 시집을 상재하며 왕성한 필력을 과시해온 시인의 시선집. 「꿈과 노래」 「존재의 리듬」 「삶의 애환」 「목숨의 조건」 「계절의 이법」 등 5부로 나누어 모두 70여편의 작품을 실었는데, 각 부의 제목이 암시하듯 비슷한 경향의 시들끼리 따로 묶였다.

종로서적 / A5신 / 116면 / 2000원

흔들리는 中心

박의상 지음

한국詩協賞을 수상한 바 있는 중견시인의 제5시집. 「定處」 「反動」 「同病」 등의 연작시를 비롯한 50여편의 신작시를 실었는데, 화가 김진씨의 여제 드로잉 작품을 곁들여 이채롭다. 말미에 시인 자신의 작품해설을 겸한 에세이 「시인은 모른다」를 덧붙였다. 문학비평사가 기획 출판하고 있는 「그림시선」 13번째 책.

문학비평 / A5변형 / 118면 / 3300원

고향생각

김성휘 지음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부주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교포시인의 서정시집. 「바람 맞아 비 맞아 / 늙을 줄 모르는 돌같이 / 가슴 깊이 땅땅하게 굳어진 맹서 / 같이살자 같이살자 조선말이었습니다」(「비내리는 도문역」) 등 중국땅 한인의 정서를 읊은 70여편의 작품을 5부로 나누어 실었다.

평민사 / A5신 / 148면 / 2500원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高靜熙 지음

강한 개성과 시적 에너지의 격렬함으로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고정희씨의

일곱번째 시집. 長詩라는 점에서는 「초혼제」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죽은 넋을 위로하는 씻김굿의 형식 속에 굿판의 사설조 가락으로 「어머니의 혼과 정신」을 노래했다.

창작과비평사 / A5신 / 156면 / 2000원

살과 피

강남옥 지음

지난해 대구매일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젊은 여류의 첫 시집. 유년적 상상력에 힘입은 바다 이미지를 비롯한 회상성의 체험공간과, 「걸레」 「연탄美學」 등에서 보이는 일상성의 체험공간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강남옥의 시를 인식론과 방법론의 측면으로 분석한 평론가 박덕규의 해설을 붙였다.

열음사 / A5신 / 145면 / 2000원

시운동 시선집

시운동 엮음

1980년 여름에 처음 결성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동인지를 내며 우리 문단에선 드물게 장수하고 있는 시동인 「시운동」의 시선집. 11집까지의 동인지에 발표됐던 24명 659편의 작품 가운데 대표적으로 잘된 것들을 가려 뽑았다. 말미에 평론가 류철균이 시운동 10년의 역사를 평가하고 전망한 해설 「이성과 행복」을 실었다.

푸른숲 / A5신 / 270면 / 3000원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박희준 지음

부드러운 서정성과 짧은 형태의 개결한 맛, 禪詩풍의 생략된 행간의 고요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시집. 공식적인 등단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인을 출판사에서 「찾아내」 선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여성적 화법 속에 「하늘과 사람의 하나됨」을 노래하는 화해의 세계가 펼쳐진다.

진선 / A5신 / 118면 / 2000원

이야기 세계역사

김한룡 엮음
대일출판사 / A5 / 268면 / 2000원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고대와 중세, 근대에 걸친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 중요한 것만 가려서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풀어간 역사책. 고대 수메르인들의 신화를 토대로 한 길가메시의 서사시와 홍수신화에 얽힌 이야기, 트로이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가지 얽히고 설친 사연들이 동화처럼 엮여졌고, 고대의 미이라 궁전 피라미드이라든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중세 유럽세계의 탄생과 징기스칸, 잔 다르크와 근대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프랑크혁명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원인 등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샘바리와 아낙군수

이상교 지음
대교문화 / A5신 / 208면 / 2500원

어린이들로 하여금 늘 밝은 마음과 좋은 버릇, 웃는 얼굴을 지닐 수 있도록 이야기로 엮은 성격심리 교육동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버릇, 마음가짐을 돌아켜보고 자기가 가꾸고 싶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격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털렁대는 박용배와 말을 꾸며대는 승연이, 수다스럽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어린이, 신경질을 잘 부리는 성격이거나 불평만 하는 성격 등 19가지의 특징적 성격의 장단점을 동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각 동화마다 도움말을 실어 어린이의 성격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다시 나는 새

손기원 지음
아동문예 / A5신 / 194면 / 2500원

아동문학가 손기원의 창작동화집. 시냇가 조그만 돌이나 구름 등 어린 시절 자연과 함께 살았던 기억들을 현대적인 신화로 엮어 꾸민 이야기 20편을 모았다.

지난 봄 밀렵꾼이 놓은 독이 든 콩알을 먹고 죽어간 흰둥이의 새끼, 빨난 오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로 날아오른다는 「빨난 오리」 이야기나 개구장이 달이가 아기메미 쓰르의 노래를 시끄러워 하다 매미의 탄생 비밀을 안 뒤 갑자기 들리지 않는 쓰르의 노래를 다시 그리워하게 된다는 줄거리의 「아기메미 쓰르」 등 주로 어린이와 자연과의 교감을 깨끗하고 맑게 그린 동화가 순수한 감동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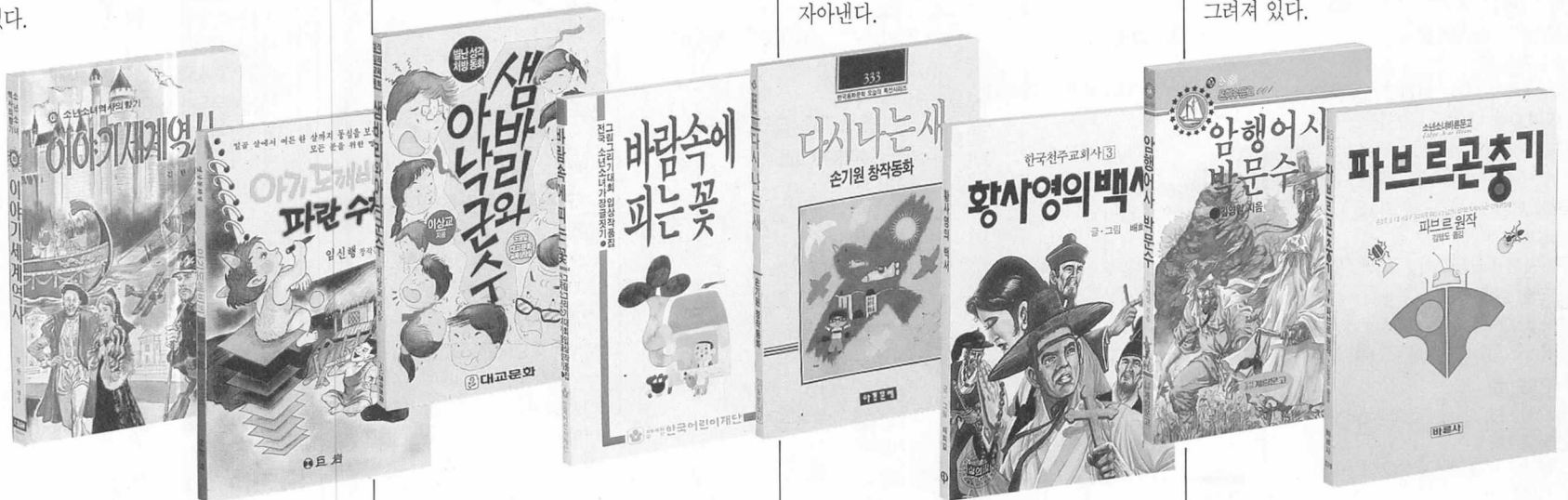
암행어사 박문수

김영일 지음
계림문고 / A5신 / 200면 / 2500원

조선 영조 때 암행어사로 이름을 떨친 박문수가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여러 사건과 일화들을 담았다.

성심껏 어사를 돕는 하인 두칠과 함께 전국을 순찰하는 박문수는 광주고을을 소란케 하며 박어사를 농락하기까지 한 괴적변개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양철태, 나라일에는 관심이 없고 못된 행실만을 일삼는 문경사또, 속임수 범력으로 순진한 백성을 괴롭히는 승천선사 등등의 사람들을 만나며 사건에 부딪친다.

어려운 사건을 날카롭고 풍부한 재치로 풀어나가는 박문수의 활약상이 통쾌하게 그려져 있다.



아기도깨비의 파란 수첩

임신행 지음
이문 / A5신 / 124면 / 2500원

선달 그믐날 밤 아기도깨비는 아빠도깨비로부터 표지가 파란 수첩을 선물로 받는다. 갈피마다 365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파란수첩에는 하루 한가지씩 좋은 일을 실천한 기록을 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기도깨비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는 줄거리의 「아기도깨비의 파란수첩」을 비롯해서 창작동화 25편이 실려 있다.

또 아빠는 사우디로 나갔고 엄마는 파출부로 일하러 가기 때문에 늘 혼자 지내야 하는 점에게 양배추인형을 선물한 금나무의 따뜻한 정을 묘사한 「양배추인형」 등 짙막한 동화 속에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람속에 피는 꽃

한국어린이재단 엮음
한국어린이재단 / A5신 / 200면 / 2500원

제2회 전국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본선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모아 묶은 책. 어린이가장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진솔하고 소박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으뜸상을 받은 이여희(춘천여중1)의 「잔디밭」은 무심코 밟고다니는 잔디를 아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유연처럼 간직하면서 잔디와 자연의 향기를 애듯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깨끗하게 그려져 있다.

이밖에 고아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바라보는 친구들을 미워했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킨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은 「사랑을 만드는 삶」을 비롯,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등 27편의 글이 담겨 있다.

항사영의 백서

배희길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A5 / 182면 / 2500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활동하는 모습과 여교우들의 활동상, 신유대박해의 실상과 천주교를 복음하는 방법까지 제시한 항사영의 백서를 만화로 엮었다.

항사영은 천주교인들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세례를 받은 후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했는데,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신유대박해의 실상을 배경의 주교에게 전하기 위해 쓴 글이 바로 이 백서이다. 결국 백서가 전달되기 전 항사영은 체포되어 사형당하지만, 백서는 한국천주교회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헌이 되고 있다. 근대사에서 박해당하던 천주교의 실태와 한국천주교인들의 저항의 모습을 생생히 읽을 수 있다.

파브르곤충기

파브르 지음 / 김영도 옮김
바른사 / A5신 / 240면 / 2500원

벌은 어떻게 제집을 찾아갈까. 쇠똥구리가 굴리는 모과처럼 생긴 공은 대체 무엇일까. 무한하고 신비한 '곤충의 세계'를 일생동안 연구한 앙리 파브르의 곤충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궁금증은 풀리게 된다.

비단벌레를 땅 속에 가두어 먹고사는 진노래기벌의 특별한 침, 남의 새끼를 훔쳐 심부름꾼으로 쓰는 붉은병정개미, 거미사냥의 명수 대모벌 등등 신기한 곤충들의 본능과 습성을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파브르는 곤충의 세계에도 책임, 의무, 일에 대한 존엄성이 있음을 중요시하면서 끈질기고 진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로 쓰게 된 「곤충기」는 10권을 내기까지 29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했다.